

일반논문

한새혜 | 『효전산고』에 나타난 여성 형상화 방식의 의미

권장규 | 전시기 국가자본주의적 기획과 소비대중의 비국민화

- 가정 캠페인과 ‘국책형 규수’를 중심으로

진선영 | 형식적 미학과 운명애의 향연

- 김말봉의 『꽃과 뱀』을 중심으로

김양선 | 전후 ‘감상적’ 여성소설의 계보

- 감상성과 시대성의 관련양상을 중심으로

이은영 | 고정희의 시에 나타나는 역사에 대한 인식의 양상

김정현 | 변위의 상상력을 통한 죽음과 운명애(amor fati) 연구

- 김정란, 『다시 시작하는 나비』(1989)를 중심으로

『효전산고』에 나타난 여성 형상화 방식의 의미

한세혜*

차례

1. 서론
2. 『효전산고』에 나타난 효전 문학의 특징
3. 여성 형상화 방식의 특징과 그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18세기 지식인이었던 효전 심노승의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그가 대상화한 여성은 누구이며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기술하였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전 문학의 특징은 먼저 당대의 전범으로 여겨지던 고문체(古文體)에서 벗어나 소품체(小品體)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둘째, 진솔함이다. 절제를 미덕으로 하는 조선의 사대부문학의 전형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관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자기 고백적 문학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비정통, 비전통의 인물과 사실들을 묘사하였으며, 특히 효전은 여성들의 삶에 주목한다. 여기서의 여성은, 효전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 즉 어떤 실체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여성이다.

효전이 『효전산고』(孝田散稿)을 통해서 형상화하고자 한 여성은 그가 지향하던 진정한 만남 곧 ‘우도’(友道)를 실현하는 여성들이다. 그 배경에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과정 수료

는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는 사회적 배경과 부조리한 정치적 세태와 관련 깊다. 그러므로 불우한 삶을 살았던 효전은 자신과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을 통해 그 진의(眞意)를 토로한다. 효전은 그들에게 자신이 염원하던 '진정한 만남'을 투영시킨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우도를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들이자, 효전 자신이 바라는 인간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는 진정한 지우를 얻지 못했고, 한시적으로 얻었다고 생각한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진정한 문장가란 지금의 삶을 진솔하게 써야만 참다운 의미가 있다고 믿었던 효전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기록에 세세하게 담아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어 : 18세기, 여성, 소품, 진솔함, 진의(眞意), 우도(友道)

1. 서론

효전 심노승(1762~1837)¹⁾은 죽은 아내에 대한 상심(傷心)을 기록한 『침상집』(枕上集)과 『미안기』(眉眼記)²⁾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조선 시대 사대부로서 성리학적 사유에 얽매이지 않고 아내를 잃은 절절한 슬픔을 가감 없는 형식의 글로 남겼다는 점은 동시대를 살았던 여타 문인들의 제문(祭文)과는 차별된다.³⁾ 또 그의 산문에서는 아내·딸·제수·어머니

1) 本貫은 청송(靑松), 字는 태등(泰登), 號는 몽산거사·효전(夢山居士·孝田)이며,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만사(晩沙) 심지원(1593~1662)의 7대손이다. 심노승은 야사 총서인 『대동패림』(大東稗林)을 편찬했으며 저술로는 『효전산고』(孝田散稿)와 유배일기와 필기(筆記) 『남천일록』(南遷日錄)과 『산해필회』(山海筆戱)가 있다. 본고의 텍스트로 삼는 『효전산고』는 1,700여수에 가까운 시와 600여수에 가까운 산문, 여러 편의 잡록을 담은 총 38책으로 구성된 문집이다.

2) 심노승의 문집 『효전산고』는 창작연대순으로 편재(編在)하였기에 『침상기』, 『미안기』 등의 소집(小集)은 모두 해체되어 실려 있다.

3) 효전의 제문(祭文)은 일반적인 제문·묘지명 등의 형식적 문체를 벗어나 '원'(原)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여성뿐 아니라, 기생·처녀·노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일화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렇다면 효전에게 대상화된 여성은 누구이며 어떠한 의도로 기술되었는가? 본고에서는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바를 규명해 나가는 작업에 이르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효전 문학의 특징을 기반으로 그가 다양한 여성을 소재로 삼고 기술한 방식을 분석하여, 작가가 노정하던 여성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전이 살았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조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봉건적 사회체제가 동요하던 18세기 조선에 명말청초의 새로운 사상과 문학, 서학 등의 유입은 상품화폐의 발달, 도시의 성장, 실학사상의 증흥을 야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단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른바 사대부들의 전범(典範)으로 여겨지던 고문체(古文體)⁴⁾가 박지원과 이덕무, 남공철 같은 이들에 의해서 소품체(小品體)로 활발히 문체 변이(變移)를 시도하고 있었던 시기도 이 무렵 쯤이다.⁵⁾ 효전은 조선 후기 산문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에 활동했던 후발 문인으로서 개성적 기량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나 ‘기’(記) 같은 다양한 문체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효전은 “아내를 잃고 너무 슬퍼하는 자는 세상에서 비웃는 까닭에 아내를 잃은 자는 풍속을 두려워하여 그 슬픔을 숨긴다”라고 밝히며, 무려 26체의 시와 23편의 문을 남겨 아내를 애도하였으니 이는 우리 문학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김영진,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17~18쪽.

- 4) 당송고문은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한 문체이다. 당송고문의 사상적 기초는 좁게는 주자성리학, 크게는 유학이었다. 안대회, 『조선 후기 소품문 창작과 명칭 소품문』, 『중국문화』 제53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07, 192쪽.
- 5) 정조가 문체반정을 시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혜선(2012)에 의하면, 정조의 문체반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화사족 문인들은 주로 정조의 측근 관료들과 그 주변 인물들이었으며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①정조로부터 직접 견책을 당한 뒤 정조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자신의 문체를 바꾼 부류, 남공철·김조순·이상황·심상규 ②정조의 견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문체를 바꾸지 않은 부류, 이덕무·박제가 ③처음부터 정조의 문체관과 부합하여 정조의 문체 정책을 지지한 부류, 성대중·홍석주·정약용·서유구 ④비관료 문인으로 문체가 문제되어 처벌받거나 지목되었지만, 자신의 문체를 바꾸지 않은 부류, 이육·김려·박지원.

그러나 학계에서 효전의 문학에 관한 조명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대표 문집인 『효전산고』(孝田散稿)의 영인본 출간⁶⁾은 다양한 연구들의 본격화를 예비하고 있으며, 그 방대한 분량에 대한 번역(翻譯)작업은 김영진과 안대회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⁷⁾ 또 심노승의 유배일기인 『남천일록』(南遷日錄)과 자전문학적 성격 등에 대한 연구⁸⁾는 효전 문학의 이해를 돕는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전의 문학성의 실체가 온전히 구현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규명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음이 옳다. 따라서 효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다각화된 접근과 문제의식이 필요하며, 이 연구도 그러한 발로에서 시작하였다. 효전의 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화 방식을 고찰하는 이 연구는 기왕의 효전 문학의 분석에 결여를 보완하는 것이며, 나아가 18세기를 향유한 지식인에게 작동되었던 여성관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효전산고』에 나타난 효전 문학의 특징

2.1 소품적 문체관

조선의 건국과 함께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은 17세기 이

6) 심노승, 『효전산고』 1-13권, 학자원, 2014.

7) 김영진, 앞의 책. 안대회·김보성 외 역, 『자지실기』, 휴머니스트, 2014.

8) 김영진, 「유배인 심노승의 孤獨(고독)과 文筆(문필)로써의 消愁(소수) 유배일기 『南遷日錄(남천일록)』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근역한문학회, 2013. 안대회, 「18,19 세기의 음식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 -심노승(沈魯崇)의 『효전산고(孝田散稿)』와 『남천일록(南遷日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9권0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5. 정우봉, 「일기문학의 관점에서 본 감담일기의 특징과 의의」, 『韓國漢文學研究』, 한국한문학회, 2010. 정우봉, 「沈魯崇(심노승)의 『南遷日錄(남천일록)』에 나타난 내면고백과 소통의 글쓰기」, 『韓國漢文學研究』, 한국한문학회, 2013. 정우봉, 「심노승(沈魯崇)의 자전문학(自傳文學)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과 자아 형상」, 『민족문화연구』 62권0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래 지나치게 사변적인 경향으로 흘러 비생산적인 공리공론만 일삼게 되자, 집권층의 자기방어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게 되었고 사림의 시대를 유지하는 이념적 토대가 일각에서 무너져 내리게 된다.⁹⁾ 대외적으로는 청으로부터 각종 장서와 소설, 공안파(公安派)·경릉파(竟陵派)에 속한 소품 등이 유입되었으며, 더군다나 경화세족들에 의한 패관잡기·소품문 수용과 창작은 적극적이었다. 경화세족은 당대 지식인의 주류를 이루며 조선의 문화 전반을 선도해 가는 이들이자, 국정을 운영해 갈 담당자들이다. 때문에 정조는 중국 서적의 수입 금지를 천명하는 등 자신의 치세(治世) 마지막까지 문체를 화두로 해서 이단적 사고와 학문을 감독·검열하였으며, 특히 명말청초의 문집, 소품, 패관잡기, 소설, 고증학 등을 문체를 오염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¹⁰⁾ 그렇다고 해서 소품문 독서와 창작의 열기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유행처럼 번진 조선 문단의 독서 경향은 기존 체제 내에서 문학적 성향을 변형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주자학을 전면 비판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한발자국 물러나 문인들의 자의식을 성찰하고 일상과 내면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또 기왕의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고문(古文)이나 주소체(奏疏體) 산문이 이지적이고 교훈적, 관념적인 내용을 위주로 글을 썼다면, 소품문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감성적 글쓰기를 지향함으로써 기왕의 산문과는 이채(異彩)를 띠고 소재 면에서도 생활의 실감을 느낄 수 있는 재료를 취해왔다.¹¹⁾

9) 박재경, 「18세기 조선 문단의 명말청초 문학 인지 양상」, 『동방학문화』 54집, 동방한문학회, 2013.

10) 문학·소설·소품은 문목 필연 간의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쉽사리 빠져들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반유가적 사고를 갖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오히려 천주학과 양명학은 이데올로기를 표면화시키고 있기에 숨어내기 쉬우나, 문학은 그것을 은폐할 수 있는 장치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품은 양명좌파의 사유를 내장하고 있으면서 대상으로의 복귀를 통해 세계의 구체성을 검토함으로써 이념적 주류를 해체하기에 이른다. 강명관, 「문체와 국가정치」, 『문학과 경계』, 문학과 경계사, 2001, 126~129쪽.

11)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 변모」,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

효전 역시 고문가(古文家)들이 다루던 문체에서 벗어나 소품과 같은 문체를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고 조선의 사대부가로서 익힌 유교적 사상과 체제·이념을 다 벗어던지지는 못하였다. 문체로써 어느 정도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그러한 방향이 다분히 조선이라는 틀을 깨고 혁명적으로 전횡(專橫)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품문은 18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문학 경향의 일단이나 사조(思潮)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본고가 지향하는 바는 효전의 소품문이나 소품체의 특징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문학적 경향성을 언급하는 것일 뿐이다. 요컨대 효전 문학의 소품적 특징은 고문과 대립되는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기존의 관습과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저술을 기획하고 창작하려 한 효전의 문체관을 인용해보자.

제가 세상에 글 잘한다고 일컬어지는 자들을 보니 그들은 걸핏하면 스스로 ‘古文’ ‘고문’ 외쳐댁니다. 지금 사람이 왜 고문을 합니까? 古人之 앞 시대에도 고문은 있었지만 고인은 어찌 일찍이 옛것을 좋아하고 지금 것을 싫어하여 지금 사람들처럼 字句의 찌꺼기에 힘써 그 비슷하기를 구해 절절히 自好하나 구하면 구할수록 더 비슷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까? 미수 허목은 性癖(성벽)이 옛것을 좋아하여 文을 지움에 典謨(『서경』)가 아니면 하지 않았고, 詩를 지움에는 雅頌(『시경』)이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 다. 그의 문집을 보면 참으로 가소로운 것이 많으니 ... 단지 한 줄의 活氣도 없음과 한 점의 眞意도 없음을 볼 뿐이니 사람 가운데 활기가 없는 이는 나무인형이요, 문장 가운데 진의가 없는 것은 거짓문일 따름이니 글을 지움에 어찌 나무인형·거짓문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민망히 여기고 탄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글을 지움에 혹시라도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놀라 두려워하여 마치 농부가 잡풀을 뽑아버리듯 하였으니 차라리 속될망정 거짓은 감히 하지 않았습니 다.¹²⁾

회, 2001, 108~109쪽.

12) 沈魯崇, 『孝田散稿』, 7冊, 『興愼生(千能)』

이 편지는 효전이 1798년 신천능(1764~1803)이라는 경상도 거창 출신 문인에게 준 것으로 그는 서울에 와서 효전의 집에 기식(寄食)하며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다.¹³⁾ 효전에 의하면 지금의 글이나 좀 쓴다는 자들은 오늘날의 글을 무시하고 오로지 고문에 경도(傾倒)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고인(古人)이 과연 그 시대의 글짓기를 싫어했다면 지금껏 전해 내려오는 명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는가 역설하며, 그들이 지금의 허목과 같은 자들처럼 진의(眞意) 없이 답습하는 고문에만 힘썼을 리 만무하다는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오늘날의 고문이라는 것은 고인이 살았던 당시의 새로운 글이다. 그것은 그 시대의 새로운 정신과 뜻이 담긴 참된 글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장가들은 그러한 생각 없이 그저 선인들의 문장을 앵무의 새처럼 베끼기에 여념이 없다. 따라서 지금의 문학은 나무인형이고 거짓문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효전 자신은 글을 지음에는 고문을 따라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구(字句)의 찌꺼기를 본뜬까 두려워 글을 짓는 데 가장 경계하는 바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말미에서 효전은 “고상한 체 말고 낮추십시오.”라 하며, “오직 지금 사람은 고문을 해서는 안 되며, 고인 또한 스스로 고문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신다면 좋은 글에 거의 가까워질 것”이라 당부하고 조언한다. 이러한 효전의 문학관은 다음의 작품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사람들이 금강산에 오르기를 좋아하는 것은 당귀나물을 좋아하는 것과 똑같아서 모두 명성을 좋아하는 것이다. 사람의 시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비로봉에 올라도 멀리 볼 수 없다. 그들이 어떤 땅, 어떤 산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단지 종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을 따라한 것일 뿐이다.” 이는 감사 임규가 한 말이다. 농암의 『동유기』에 실려 있는데, 임규가 당귀나물을 먹지 않았기에 한 말이었다. 임규의 말은 어쩔 그리도 짝 막혔을까? 시력의 한계도 원래 멀리 보고 가까이 보는 것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고, 식성의 편

13) 심노승은 신천능과 문학으로 가까이하였을 뿐 아니라 역사서도 함께 편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일찍 요절하자 몹시 비통해 하였다. 김영진, 앞의 책, 197쪽.

벽됨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 내가 먹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천하 사람들의 입과 눈을 똑같이 만들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당귀나물은 내가 매우 좋아하는 음식이나 쉽게 얻을 수 없고, 비로봉은 내가 보고 싶은 곳이나 매번 오를 수 없는 곳이다.¹⁴⁾

이 글에서 효전은 농암 김창협(1734~1815)의 『동유기』에 수록된 임규의 말을 인용하여 편향적인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효전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당귀나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아서 모두 명성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임규의 말에 대해, 사람의 시력이나 식성도 제 각기 다른데 그것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규정짓는 생각은 그릇된 사고라고 지적한다. 누군가는 금강산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고 당귀나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좋아하며 더욱이 명성 때문이라 규정짓는 사고(思考)는 상대의 생각과 상황맥락·입장 등을 이해하지 못한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것이다. 일원론적 사고의 획일성은 다양한 사유와 시각을 방해하는 동인(動因)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문(古文)에 대한 집착이나 선입견은 문학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효전의 문학관은 동시대의 작가이자 한 세대 앞선 연암 박지원(1737~1805)의 상대주의적 시각과 조우(遭遇)된다. 고정된 시각에 사로잡혀 사물을 재단하는 사고의 위험성을 면밀하게 전개한 연암의 이른바 까마귀 빛깔론¹⁵⁾이 그것이다. 참식견은 요컨대 내가 본 사실과 나는 알 수 없지만 다른 편에서 보이는 사실의 사이[中]에 존재하며, 시각에 따라 달라 보이는 즉 상황에 따라 이동하는 사실은 ‘나와 타자가 공통으로 참여하는 인식’이라는 지평의 확장을 낳는다.¹⁶⁾ 뿐만 아니라 『燕巖集』(연암집)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읽어

14) 沈魯崇, 『孝田散稿』 34冊, 「自著實記」, <聞見外篇>

15) “까마귀가 검다는 생각을 가진 이는 검은 빛 속에 들어 있는 푸른빛과 붉은빛을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외물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 재단하고 단정해 버린다. 그의 인식을 오류에 이끈 결정적인 원인은 본 것이 적기 때문이다.” 朴趾源, 『燕巖集』 卷7, 「鐘北小選」

16) 이경구, 「조선 후기 주변 인식의 변화와 소통의 가능성 - 18세기 연행록과 북학과

낼 수 있다.

‘古’를 기준으로 수(수)를 본다면 수(수)가 비속하지만, 옛 사람들이 세운 기준 역시 ‘하나의 수(수)이었다 … ‘수(수)이라는 것은 ‘古’에 대비할 때에 일컫는 것이다.¹⁷⁾

주지하듯, 연암은 당대 백담파라 불리던 주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연행담을 자주 접했을 뿐 아니라, 단순히 통념 속의 세계로 간주되었던 중화의 실체를 실제로 경험한 장본인이다. 그러한 경험은 사유의 전복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동하였으며 시각의 상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옛 사람들이 지은 고문(古文)은 지금의 수(금)과 다름이 없다’는 연암의 생각은, 앞서 신천능에게 보낸 편지에서 담긴 효전의 생각과 유사하다. 문인이라면 응당 과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학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연암의 생각이 효전에게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대의 전범을 깨고 독특한 글쓰기를 구사하였던 재야형 문인들이 갖고자 했던 문장관의 일단(一端)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겠다.

2.2 자기 고백과 성찰의 문학[진솔성 · 眞意性]

효전 문학의 또 다른 특징은 진솔함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절제를 미덕으로 하는 조선의 사대부문학의 전형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관(主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자기 고백적 문학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인들의 자의식에는 의식주의 일상사와 감각의 문체는 점잖고 고급스러워야 하며, 지식과 교양을 과시해야 하는 기록물에서는 모습을 감추어야 했다¹⁸⁾ 자

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3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09, 112쪽.

17) 朴趾源, 『燕巖集』 卷7, 『鐘北小選』, <嬰處稿序>

18) 감각적 쾌락을 저급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던 조선에서 효전은 거론하는 순간 사치

기검열의 과정이 필수적이었던 문사들에 반해, 효전의 글쓰기에 나타나 자기 고백과 성찰은 솔직함과 진솔함을 넘어 적나라하다. 지식인의 체면이나 일체의 고고함은 벗어던지고 육체를 욕망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밝힌다.

정욕이 남보다 지나친 면이 있었다. 열네다섯 살부터 서른대여섯 살까지 거의 미친 듯 방종해 하마터면 폐가망신할 지경이었다. 심지어는 기생들과 놀 때 좁은 골목이나 개구멍도 가리지 않아 남들에게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샀고, 스스로도 흑독하게 반성했지만 끝내 그만두지 못하였다. 그 정도면 정욕에 빠진 탓으로 흑한 마음의 병이 생길 법도 하다. 처음에는 깊이 빠져 돌아오지 못할 듯했으나 끝내는 대범하게 연연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기생 집에 자주 출입한다는 좋지 못한 소리는 면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억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생에 빠진 것은 정에 준 것에 불과하고 마음은 쉽게 동하지 않았다.¹⁹⁾

위의 자료에서 효전은 정욕에 대한 집착이 열네다섯 살부터 20년간 계속되어 방종을 넘어 폐가망신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기생집 출입이 잦은 자신을 힐난하는 비웃음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음을 주저 없이 밝힌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여성 혹은 기생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육체를 갈망했던 것으로 그 소회를 털어놓는다. 효전은 이처럼 스스로없이 자신의 정욕이나 성적 방종의 실체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규범 있는 양반가의 자제로서 보기 드문 금기의 해체이다. 절제와 금도의 경계로부터 벗어나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였던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은 솔직함은 효전 문학을 관통하는 근간이 되는데, 본래 그가 글을 쓰고자 하

와 쾌락의 추종이란 굴레를 쓰기 쉬운 '미각'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기술한다. 자료 소개 및 작품 분석은 안대회(2015) 참조.

19) 沈魯崇, 『孝田散稿』 33冊, 「自著實記」, <性氣>

는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점이다. 다음의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자.

터럭 하나라도 똑같지 않으면 사람의 본모습과 다르다. 그림도 그러한데 글로 사람을 온전히 묘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림으로 그려내지 못하는 것을 글이 그려내기도 한다. … 나는 어려서부터 초상화를 좋아해 화공만 만나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졸라댔다. 몇 명의 화가를 거쳐 수십 본을 바꾸어 그렸으나 하나도 닮은 것이 없어서 제풀에 지쳐 포기하고 말았다.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다면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글이라면 굳이 남의 손을 빌릴 필요 없이 차라리 내가 직접 써서 후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낫다. …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글이 나올 수도 있으나 사실대로 드러내는 점에서는 글이 그림보다 분명히 낫다.²⁰⁾

위의 자료에서 효전은 그림과 글을 비교하며, 초상화는 터럭 하나도 똑같지 않으면 사람의 본모습과 다르다고 밝힌다. 그러나 글은 그림이 그려내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남의 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한다. 초상화가 되었든 글이나 문집이 되었든 결국 주체의 실체를 명확히 알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효전에 따르면 그것은 남에 의해서 구현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에 의해서 더 선명해질 수 있다. 글에 의한 것은 더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타인에 의한 나의 기록은 (자타간의) 어떠한 관계나 이유에서 그 본뜻이 윤색되거나 가감될 수 있으나, 스스로가 세세히 기록한다면 그것은 더 사실에 가깝게 된다는 것이다. “글이라면 내가 직접 써서 후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실체를 (글을 매개로) 사실적으로 보여주려면, 그 전제 조건은 응당 진솔하게 자신의 진의(眞意)와 자아 일체를 기탄(忌憚)없이 기술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때

20) 沈魯崇, 『孝田散稿』 33冊, 「自著實記」, <傷貌>

문에 효전은 앞선 자료에서 보였던 것과 같이 정욕에 대해서까지도 스투럼없이 밝히고 있었던 것이며, 신변잡사의 세세한 기록을 편집증적으로 남김으로써 『효전산고』와 같은 방대한 저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3 비정통, 비전통의 인물 형상

효전은 조선 정통의 권위를 갖는 당송고문처럼 문학의 대상이나 표현 방식의 일정한 범주를 따르기보다는, 그런 규범과 범주를 벗어나 비정통, 비전통의 인물과 사실들을 묘사하였다.²¹⁾ 이 언술은 효전이 『효전산고』에서 과거나 당대의 존숭할 만한 인물들에 대한 치적(治績)을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본고는 효전이 당대 권력의 핵심인물이었던 홍국영, 김종수, 심환지, 김귀주 등과 같은 노론계 벽파(僻派)의 정치 농단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곧 벽파 쪽 정객에 대한 묘사는 단지 대상화와 인물만 주류를 삼았을 뿐이지, 그 행적에 있어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비열하고 추악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이것은 효전이 비정통, 비전통성을 갖는 이른바 비주류 인물의 공적(功績)을 예찬하는 방식과 대조된다. 효전의 정치적 성향은 『효전산고』에 나타난 여성 형상화 방식의 의미를 고찰하는 요체가 되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다음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정리하면 『효전산고』는 선인들과 동시대 여러 인물들의 일화를 모아 그 치적의 시비(是非)를 가리고 있다. 핵심은 정통성이나 전통성을 갖는 인물들과 동등한 범주에서 ‘비정통, 비전통의 인물들의 공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21) 안대회(2007)는 조선 후기의 산문 문학의 창작과 저술에서 발생한 주요한 변화로 “1. 전통과 정통의 권위를 부정하는 태도, 2. 새로운 문장의 시도와 저술 방법의 다양화, 3. 소설과 희곡 감상의 취향”을 든다.

옛날에는 인재가 많아 신분이 낮은 역관들 가운데에서도 재주와 지혜가 특출나고 임기응변과 기지가 뛰어나 나라의 안녕을 반석에 올려놓고 나라의 위세를 드높인 인물들이 있었다. … 지중추부사 표헌 부자는 역관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인물이다. 선조 임금이 중국 사신을 접견할 때 표헌이 통역을 맡았다. … 중국 사신은 원래 술을 잘 마시기로 소문이 자자하던 터라 선조 임금이 그와의 대작에서 건디지 못할까 염려해 술 대신 꿀물을 진상했는데, 사신은 취하고 선조 임금은 취하지 않았다. 사신이 이를 눈치 채고 선조에게 잔을 바꾸어 마시자고 하였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어쩔 줄 몰라 할 때 표헌이 임금의 술잔을 받들고 사신 쪽으로 가다가 일부러 넘어져서 잔을 엎어버렸다. 선조는 사신에게 실례를 범했다고 질책하며 표헌을 옥에 가두어 죄를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사신이 한사코 말리는 바람에 명을 거두었다. 그는 이렇게 임기응변에 능하였다.²²⁾

위의 자료는 역관(譯官)이라는 신분이었으나 훌륭한 자질을 지녔던 표헌(表憲) 부자(父子)와 관련한 일화를 기술한 것이다. 주지하듯 역관은 사대교린(事大交隣)에 있어 통·번역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관리로서 중인의 대표적인 기술관이다. 이들은 행정실무뿐만 아니라 지식과 경제력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보이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사대부들은 통상 신분적 차이를 견지하며 역관을 하대(下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효전 역시 역관을 ‘상역지천[象驛之賤]’으로 여기고 있으나, “그 재주나 지혜가 빼어나고 임기응변과 기지가 뛰어나 나라의 안녕을 반석에 올려놓고 나라의 위세를 드높인 인물”에 표헌이 있음을 밝힌다. 표헌은 선조 임금이 사신을 접견할 때 통역을 맡았는데, 곤경한 처지에 빠진 임금을 위해 기지를 발휘하여 어려움을 모면하게 한다. 천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신과의 접견은 정치·외교 등 중요한 국가 간 교섭 중 하나이다. 응당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마땅할 협정의 자리에서 자칫 그 신

22) 沈魯崇, 『孝田散稿』 34冊, 「自著實記」, <聞見外篇>

의가 깨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역관 한 명이 해결한 것이다. 사신과 접견하는 자리에 함께 했던 어떠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어 효전은 표현의 아들 표정로(表廷老)에 대한 행적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표현의 아들 표정로가 의주에서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데, 사신이 매우 거만하였다. 사신은 은행을 씹으면서 “은행 껍질 속에 푸른 옥돌이 숨어 있네”[銀杏甲中藏碧玉]라는 대구 한 구절을 읊어서 원접사에게 바로 이어서 지어보라고 하였다. 표정로가 즉석에서 “석류 껍질 속에는 주사가 박혀있네”[石榴皮裏點朱砂]라고 대꾸하였다. 중국 사신이 크게 놀라며 “통역관이 이 정도이니 원접사가 어떤 수준일지 알 만하다”라고 하였다.

거만한 사신의 갑작스러운 대구(對句) 요구에도 역관 표정로는 주저하지 않고 문학적 기량을 발휘한다. 일개 수행원에 불과한 통역관이 사신을 맞이하는 높은 벼슬의 원접사(遠接使)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효전은 임기응변은 물론 학식과 문예에도 뛰어난 소양을 갖추고 있는 역관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있다. 비주류 인물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일화를 살펴보자.

멜감 장수 몇 명이 겨울에 혜화문에 들어와 잣골 앞길을 지나다가 집집마다 문 앞에 꿩 털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늙은 장수 하나가 젊은 장수에게 “꿩 털에는 독이 있지. 이 늙은이가 지금껏 꿩 털이 많이 쌓여 있는 집안이 3년 동안 편안히 지나가는 꼴을 본 적이 없어”라고 하였다. 이듬해 김우진 사건²³⁾이 터져서 온 동네가 끝내 쇠락하고 말았다. 나의 외숙 일몽 선생은 일찍

23) 김우진(金字鎭, 1754~?): 1779년에 세도가 홍국영(洪國榮)은 정조가 후사가 없자, 정조의 동생 은언군 인(恩彦君愾)의 아들 완풍군 담(完豐君澣)을 후사로 삼으려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반역죄로 몰아 살해하게 하였다. 이때 평소 담과 친하여 그의 혼인 때 혼수를 보내 도운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담의 역모와 관련, 추국(推鞠)을 받고 제주도에서 위리안치되었다. 1791년(정조 15) 부친상을 당하여 풀

이 “천하에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물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좋은 벼슬이고, 둘째는 아름다운 여인이며, 셋째는 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빨감 장수의 말이 선생의 말과 똑같다.²⁴⁾

이 자료에서 효전은 미천한 신분의 빨감 장수이지만 그 선견지명(先見之明)에 있어서는 나의 외숙 일몽(一夢) 이규상²⁵⁾(1727~1799)과 다를 바 없다고 술회한다. 일몽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물건은 벼슬·미색(美色)·돈인데, 이것은 늙은 빨감 장수가 재앙을 예고한 상징적인 의미의 꿩 털과 상응된다. 빨감 장수의 신분이 비록 미천하다 하나 여항을 돌아다니며 축적된 식견은 인간사 각양각태의 길흉화복을 예지할 수 있게 한다. 늙은이에게 쌓인 인생의 관록은 학문이나 교육으로 고양된 선인들의 가르침과 방법은 다르나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의 본질은 같다. 이처럼 효전은 저잣거리의 그저 그런 범부의 예언이라 치부할 수 있는 늙은 빨감장수의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포착한다. 뿐만 아니라 『효전산고』에서는 무인(武人)이나 노비 등에 이르기까지 전범의 범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이상에서처럼 효전은 비정통, 비전통의 인물들에 주목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조선의 남존여비(男尊女卑)사상은 사회 이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강조되었기에, 여성은 한층 더 규범(規範) 밖에 놓일 수밖에 없다. 본고가 집중하고자 하는 『효전산고』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형상화 방식의 특징 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려났다가 치상(治喪) 후 교동(喬桐)으로 이배되었다. 1830년(순조 30) 손자 궁창(兢昌)의 탄원으로 신원되어 그 관직이 회복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DB.

24) 沈魯崇, 『孝田散稿』 34冊, 『自著實記』, <聞見外篇>

25) 한산(韓山) 이사질(1705~1776)의 맏아들로 태어나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시문의 창작과 학문 연구에 종사했다. 문집으로 『일몽고(一夢稿)』와 『병세재언록(并世才彦錄)』이 전한다. 이사질의 차녀가 효전의 어머니이다.

3. 여성 형상화 방식의 특징과 그 의미

『효전산고』에 나타난 여성들에 대한 묘사는, 남성작가인 효전의 시점에서 여성을 대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효전으로 명시된 남성화자에 의해 기술된 여성이다. 2장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것같이, 『효전산고』는 현실 문학을 구현하려는 소품적 특징을 기반으로 자기 고백적 성찰의식이 강한 문집이다. 화자의 권위가 작가의 권위에 종속된다는 것을 상기할 때, 그 여성에 대한 시각은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여성주체의 여성적 목소리를 전면으로 읽어내는 것은, 한 문학이라는 남성 주도적 문학 안에서 필연적인 제약을 갖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성이란, 여성 주인공을 대상화하지만 작품에서 화자는 여성화자가 아니며 현실 그대로의 여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성이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어떠한 기록물 혹은 구술물이라도 ‘언어적 재구성’을 배제한 ‘현실 그대로의 여성’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²⁶⁾ 다시 말하면 『효전산고』에서의 여성은, 효전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 즉 어떤 실체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여성이다.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효전이 선택한 여성은 누구이며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형상화하고자 한 것인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효전이 대상화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갑인년(1794) 6월, 나는 제주도로 부친을 뵈러 가던 중 이진(梨津)에서 수십 일 동안을 기다렸다. 광대놀음을 시골 이웃들과 모여 구경할 때 열서너 살 되는 어린 소녀가 평상복 차림에 해쓱한 얼굴로 촌티 물씬 풍기는 섬 남녀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었다. 그 용모가 빛이 나듯 돋보여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내가 오라고 하여 몇 마디 나누다가 떡이랑, 엿, 생선

26) 박무영·김성은 외, 「환처 다시 읽기」, 『열상고전연구』 제32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116쪽.

과일 따위를 주고 그 아비에 대해 물어보았다. 본진(本鎭) 소속의 아전이라고 대답하는 그 태도나 눈짓이 깜찍하고 사랑스러웠다. 그 후로는 광대놀음이 없는데도 날마다 소녀가 찾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춤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시를 써달라고 하였다. 내가 “시는 무엇하려고?” 묻자,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라고 하기에 대충 써서 주었다. 제주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해월루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진에는 다시 가지 않았다.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무오년(1798) 여름 내가 남전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영암 사람 최성악이라는 자가 만나기를 청하였다. 불러서 보았더니 시폭(詩幅)을 바치면서 그 소녀의 오라비라며 함께 왔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으나 다시 생각해 보았다. ‘포구의 누추한 어린 소녀가 시를 달라고 하고 4년을 기다렸다가 천리 길을 찾아왔다 천하에 보기 드문 순정이니 참으로 언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나 얻은 다음 감당하기란 얻은 것보다 어려우리라. 차라리 스스로에게 누를 끼치느니 거절해 보내는 것이 낫다. 거절해 보내려면 굳이 만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는 끝내 만나지 않고 노잣돈을 마련해 돌려보냈다. 돌아가신 부친께서 들으시고 “네가 판단해 결정한 것을 내 구태여 잘못했다고 하겠느냐”라는 네가 그 일을 너무 각박하게 처리했구나!”라고 하셨다. 그 뒤에 이 일을 알게 된 사람이 내게 남의 연모하는 마음을 저버렸다고 했고, 심지어 늙도록 이룬 것 없는 신세가 오직 그 일 탓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말한 여자의 원한이란 것은 알팍하고 속된 소견이기는 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간간히 후회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²⁷⁾

이 이야기는 효전이 제주목사로 있던 부친 심낙수를 뵈러 남행길에 오르던 중, 이진(지금의 전라남도 해남 군북평면 이진리)에서 연착된 배를 수십 일째 기다리며 있었던 일을 회고하며 쓴 것이다. 이때 효전이 광대놀음판에서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던 중,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

27) 沈魯崇, 『孝田散稿』 33冊, 「自著實記」, <藝術>

소녀가 날마다 찾아와 시폭(詩幅) 써주기를 요청한다. 이후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4년 뒤 소녀는 그녀의 오라비와 함께 효전이 근무하던 남전으로 찾아온다. 효전은 소녀의 순정에 감복하지만, 면대하지 않고 노갯돈을 마련해 돌려보낸다. 이를 두고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은 어린 소녀의 연모를 저버린 것에 대해 인정이 없는 처사라고 나무라며, 그녀의 원한으로 인한 인과응보로 효전이 이룬 것이 없게 된 것이라 한다.

시간이 흘러, 효전 역시 어린 소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한다. 효전의 이러한 후회는 소녀의 진심어린 순정을 헤아려 주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유달리 정욕에 대해 심취했음을 밝혔던 2.2장의 서술을 상기해 볼 때, 그 후회는 어린 소녀를 향한 육체적 욕망의 후회라고 볼 수도 있다. 그 본뜻은 “(소녀를) 얻은 다음 감당하기란 얻은 것보다 어려우리라. 차라리 스스로에게 누를 끼치느니 거절해 보내는 것이 낫다.”라는 구절에서 여러 각도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효전은 여성을 단지 성적 매개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일까? 채워지지 않는 육체의 갈망을 소진시킬 또 하나의 대상이었을 뿐인가? 그러나 곧장 결론에 이르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다음 장에서 효전에게 대상화된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효전이 형상화하고자 한 여성들의 실체를 살펴보는 데에 여기 기생 계섭(1736~)에 대해 언급한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계섭전」(桂織傳)은 효전이 가기(歌妓) 계섭의 불우한 인생 유전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지어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傳)의 일반적인 구조, 즉 인정기술부+논평부로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작품 후반에서 인정기술(人定記述)과 논평이 착잡(錯雜)되어 있다는 형식상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²⁸⁾ 일반적으로 전(傳)이란, 후세에 귀감이 될 만

28) 18세기 활약한 예인(藝人) 집단인 이세춘 그룹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29) 김영진(1997)은 이 작품 전반의 인정 기술을 3단락으로 나누고 이렇게 요약한다. 1단락: 계섭의 노래를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도록 가르쳐주고 또 그녀가 성취한 그 높은 음악(예술) 수준을 진정으로 이해하였던 이정보와의 만남과 그의 죽음을 중

한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 전통적 서사물의 한 유형이다. 그렇다면 효전이 일개의 기생을 ‘전’에 입전하여 일대기를 기록할 만큼 가치 있다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하 계섬전¹⁾에서는 인정기술 이후 이어진 계섬과 효전의 대화 그리고 논평 부분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정사년 여름 내가 우상정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계섬이 나귀를 타고 방문했다. 그때 나이가 62세였는데도 머리도 세지 않고 말도 유창하게 하여 기운이 성하였다. 자신의 평생을 얘기하다가 문득 추연히 말하기를, “내 오십 평생을 살며 세상물정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사는 즐거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되 부귀는 거기에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진정한 만남[奇遇]이었지요. 내 어려서부터 이름이 나라에 퍼져 더불어 노닌 이들이 다 한때의 현인과 호걸이었습니다. 저들은 호화스러운 저택과 휘황한 비단으로 내 마음을 맞추려했지만 힘쓰면 힘쓸수록 내 마음은 더욱 맞지 않게 되었더니 한번 떠나니 결국 다 길 지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공이 일찍이 말씀하시길, ‘지금 세상에는 대장부가 없으니 너는 끝내 불우하다가 죽을 것이다’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그 채주와 현명함이 나만한 이가 없음을 이른 것이 아니라 만남의 어려움을 이른 것입니다. 그때 저 또한 공의 말씀이 꼭 그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니 그렇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공께서 참으로 신통하셨습니다. 그러하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역사를 살펴보건대 제대로 만났다가 벗어나 되었습니까? 내 비록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떠나 자적할 수는 있었으니 저 만나지 못하고도 떠나지 못해 끝내 버림까지 받은 자는

심으로 기술. 2단락: 성적(性的)·신분적 질곡과 지음(知音)의 죽음으로 야기된 심한 갈등과 고통 속에서 결국 노래를 버리고 강원도 정선 산중으로 들어가 불교로 마음을 달래며 자신의 새 삶을 개척하는 계섬의 모습이 기술. 3단락: 권귀(權貴) 홍국영의 부름으로 ‘거친 베치마에 짚신 신고 나물과 버섯을 따며 산과 강을 오가던’ 그녀의 자유 구가는 좌절. 이후 홍국영의 몰락으로 그녀의 신분을 벗어난 당대의 풍류장자 심용의 집에서 새 삶을 꾸림. 그녀는 자신의 집을 산중에 따로 마련하여 돈독한 신앙으로 마음을 달래며 보살과 같이 삶.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불교에 삼생육도의 설이 있으니 제가 계율대로 수행하면 내세에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래의 귀의한 것만으로 족합니다”라고 말하고는 강개하여 울먹울먹하였다. 나 또한 크게 탄식하였다.

위의 자료는 계섭이 작자인 효전에게 직접 언술한 내용이다. 요약해보면, 계섭은 어린 시절부터 기녀로 이름나 다양한 이들을 만나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진정한 만남’이었다고 토로한다.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는 그녀를 한 남성에게 예속(隸屬)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녀가 가진 재예(才藝)의 출중함은 또한 진정한 만남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섭은 그 ‘만남의 어려움’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도 지속된 문제였다고 환기시킨다. 때문에 그녀가 의미하는 진정한 만남이란 기생이라는 신분에 의해 만남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남성이나 필부(匹夫)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진정한 지우(知友)·지기(知己)를 염원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섭은 “내 비록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떠나 자적할 수는 있었으니, 저 만나지 못하고도 떠나지 못해 끝내 버림까지 받은 자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라고 하며, 자신보다도 더 못한 이들이 있음을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있다. 이는 계섭의 언술 뒤에 이어진 효전의 의론(議論)에서 구체화된다.

아! 옛날의 호걸한 이들이 스스로 그 임금을 만났다 생각하여 부귀에 처하는 것을 그치지 않더니 끝내 명예는 없어지고 일신은 욕을 입어 천하의 비웃음을 당하니 저들은 어찌 이른 바 ‘만났다’는 것이 꼭 ‘참 만남’은 아님을 알지 못하여 끝내 또한 스스로 면치 못하는 데까지 이르러서도 오히려 머뭇거리며 연연해하면서 부귀를 잃지 않으려 몸으로 버티면서 근심하는가! 어떤 이는 거의 보전할 듯하지만 그 몸이 떠나지 않으면 부귀 또한 따라 잃게 됨을 전혀 알지 못하니 어찌 한탄하지 않으리오! 오직 부귀에 부림당하

지 않고 제 한 몸 자립하여 만나지 못하면 그치고 만나면 행하리니, 그 만남도 진실로 오래 행할 수 없는 것일진대 비록 만나지 못한들 어찌 근심하리오!...³⁰⁾

효전은 계섭의 이야기를 듣고는 진정한 만남에 대해 이렇게 논한다. 참 만남이란, 누구나 바라는 바이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여러 방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기우(奇遇)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 그들 사이의 뜻이 맞아야 한다. 여기서의 뜻은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대부였던 효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진의(眞意)가 맞다는 의미는 우선 군신(君臣) 관계로 집약될 수 있다. 예컨대 조정에서 국정을 운영해가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그가 실현하려는 가치나 뜻을 인정받고 선택되었기에 이른바 ‘만났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하가 지향하는 본래의 가치가 무엇이었느냐는 그 스스로가 알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부귀나 명예일 수도 있으며, 정치일 수도 혹은 그 이상을 넘어선 신념이나 이상향의 문제일 수도 있다. 기존의 가치관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바뀐다. 여기서의 핵심은 누가 나의 그 본질을 알아주느냐이다. 참 만남은 나의 뜻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또는 내가 잊고 있던 것을 찾아줄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지만 정작 나는 모르고 있어서 그 나의 진가를 일깨워주는 것이 참 만남일 수 있다. 또 그러한 만남은 양자에 모두 시너지가 되어 상호보완적이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 때 뜻이 합(合)하여 잠시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을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는다. 그렇기에 진정한 만남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진정한 만남에 대한 갈망은 계속되는 것이며 고금을 막론하고 회자되는 것이리라.

30) 沈魯崇, 『孝田散稿』 7冊, 「桂織傳」

이처럼 계섭이 쟁점화하고 효전이 논(論)하고 있는 ‘진정한 만남은 ‘友道’(우도)의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友道(우도)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信義(신의)를 지켜 나가면서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서로가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실제 이 ‘우도’는 붕우 관계는 물론이고 군신(君臣)·장유(長幼)·사제(師弟)·부부(夫婦)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수직적 관계를 중시하는 조선의 사회에서 이 같은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담론은 다소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 중기까지 신분의 층위, 나이의 차이를 넘나드는 우정 관계 자료가 흔치 않은 것도 이러한 양상과 관계 깊다. 그러나 18세기로 오면서 이른바 소외된 지식인, 선진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그 배경에는 능력 있는 인재를 알아주지 않고 부조리만이 횡행하는 세대에 대한 지식인들의 우울한 고뇌에 있다.³¹⁾ 당과 간의 분열과 정쟁(政爭) 속에 수많은 문인들은 유배지로 내몰리거나 억울하게 희생당하기 일쑤였다. 이런 권력의 쟁투에서 소외된 대표적 문인이 바로 효전이다.

잠시 효전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렇다. 부친 심낙수(1739~1799)는 전형적인 명문가 출신의 지식인으로 큰 벼슬은 하지 못하였으나 노론계(老論系) 시파(時派)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기질의 강개(慷慨)함은 벽파(僻派)와 대립에도 타협하지 않고 강경한 노선을 이끌었다. 효전은 정조 사후 벽파정권이 성립되자 사망한 부친의 죄가 연좌되어 경상도 기장현(機張縣)으로 유배되었다가, 벽파가 몰락한 뒤 해배(解配)되었지만 정계 요직에는 좌수되지 못하고 지방관을 전전하였다. 『효전산고』에서는 부친의 정치 투쟁 과정을 목도하고 부조리한 정계의 실태를 고발한 내용도 두루 찾아낼 수 있다. 위에서 계섭이 벽파의 중심이었던 홍국영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로 저항했던 것을 일화³²⁾로 다룬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31) 박수밀, 「18세기 우도론의 문학·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86쪽.

32) 주 25) 참조.

기생이었지만 계섬 역시 벽파를 비판하고 있었던 인물로, 정치관이 확고한 여성이었다.

기생 계섬에게 놓인 신분적 한계나 사연의 곡절은 진정한 만남을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섬은 지우를 염원하였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내세에 그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자립(自立)하고 있다. 효전 역시 불우한 상황과 처지에 놓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벽파의 정치적 모략으로 유배지를 전전하고 해배 후에도 중앙정계 진출이 어려웠다. 그것은 임금이나 정치적 동료와 같은 지우(知友)를 얻지 못했던 원인이 된다.

이제 효전이 계섬을 선택한 이유가 의도가 분명해졌다. 계섬은 효전의 생각을 반영한 투사체이다. 계섬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이며 더군다나 미천한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도를 논한다. 그것은 일개의 기생도 알고 소망하며 실천하는 것이다. 효전이 기생의 목소리를 통해 형상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노파(老婆)와 관련한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노파는 훈도방의 남쪽 골목에 살았으니 우리집과 이웃한 곳이었다. 나의 모친께 인사를 드리니 모친께서는 그녀의 궁함을 불쌍히 여겨 자못 대접을 잘해주었다. ... “저는 백성 가운데 가장 궁한 이로 하늘도 싫어하시고 사람들도 천히 여기는 자인데 오직 마님께서 불쌍히 생각해 주시니 저는 살아서는 마님의 손발이 되어 드리고, 죽어서는 보살의 손발이 되면 이것으로 족합니다.”라고 하였다. 내 어렸을 때를 기억해보면 노파는 산사에서 와 당에 올라 모친께 큰절을 한 후 붓짐을 열어 송이와 곶전을 내어 먹고는 「회심가」, 「천수경」을 외우면서 반복하여 그 뜻을 풀었다. 나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감동되어 들을 만했다. 그 뒤로 나는 이유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아내는 불교를 아주 좋아하여 노파가 더욱 득의하여 말하기를 “내 늙어 죽게 된 무렵에야 마님께 귀의하였더니 마님께서는 나를 좋아하시기는 하지만 불교는 좋아하지 않으셔서 내가 한스럽게 여겼는데 이제 아씨께서 이와 같이 불도를 좋아하시니 이는 연분이라 어찌 인력으로 미칠 수 있으리오?”라 하고

는 이로부터 아내를 ‘우리 아씨’ ‘우리 아씨’하며 불렀다. 아내는 모친을 모시고, 여러 시누·동서·첩 등은 노파 앞에 둘러앉아 불경을 외고 계(儂)를 읊조리면서 모친의 장수를 축원하니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하였다. 이리하여 규방에 평소 거처할 때 노파가 없으면 즐겁지 않았다. … 몇 년 뒤 아내는 병이 들었다. 노파는 아내를 위해 기도했으나 병은 위독해졌고, 아내는 노파에게 상사(喪事)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내가 죽었을 때 노파는 산사에 있었다. 내가 사람을 시켜 부음을 알리니 노파는 목욕재계를 하고 몸소 쌀을 씻어 밥을 하여 망자에게 바치고 장례에 임해 입으로는 불경을 외면서 손으로는 염을 하는데 노복들이 함께 하지 못하게 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는 과거에서 지냈다. 내가 서울에 올 때마다 노파는 산사로부터 술과 과일을 들고 나를 찾아와서는 내 손을 잡고 목이 쉬도록 통곡하고는 개연히 탄식하여 말하기를, “그대도 또한 저 윤희성을 들으셨겠지요. 선비들은 알지 못하나 우리 부처님만은 홀로 아신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선악에는 응보가 있으니 선한 일을 한 자에게 보답이 없을 때는 그 자손에게 보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손이 없을 때는 장차 어디에서 보답을 받는단 말입니까? 우리 아씨는 평생 불법을 믿었건만 자식 없이 죽어 끝내 보답도 없게 되었으니 불법 또한 망령될 뿐이로군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보답은 내 세에 있음을. 아씨가 장차 그대와 끊어지려 함에 한때의 고취를 생각해 보고는 개연히 놀라고, 이제 영겁의 맑은 복을 누리게 되어 탈연히 즐거워하시니 지금 그대의 통곡과 비애는 다만 아씨에게 누가 될 따름입니다.”

이 글은 효전의 집을 왕래하며 모친 및 아내와 각별하게 연분을 맺은 불교신자 박노파를 위해 지어진 것이다. 글의 전반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 글 초반에는 노파의 유년시절과 불교에 귀의하게 된 이유를 기록한다. 글 중반에서는 효전의 식구들에 얽힌 일화와 아내의 죽음과 관련한 노파의 행적을 알리고, 말미에서는 노파의 생몰(生沒)을 알리며 그를 논찬(論贊)한다. 조선조에는 승려의 도성(都城) 출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노파 같은 사람들이 사대부가를 드나들면서 사대부가 여

성들을 불교와 연결시켜 주는 일이 많았다.³³⁾ 모친은 이웃에 살던 곤궁한 노파를 잘 대해주었고 그 은혜에 감복한 노파는 불성(佛聖)을 가지고 모친을 위한다. 아내는 불교를 좋아하였기에 노파와 더 친밀하게 지내고 노파는 그런 아내를 위해 불심(佛心)을 아끼지 않는다. 아내와 노파와의 관계는 마치 한 식구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후 아내는 병이 들자 노파에게 자신의 상사(喪事)를 부탁했고, 노파는 성심성의껏 장례를 치른다. 아내가 죽은 후에도 노파는 효전을 잊지 않고 찾아와 슬픔을 위로한다.

갑인년(1794) 남행길에 해남 대둔사에서 아내의 기일을 맞아 불공을 드렸는데 나중에 서울에 돌아와 박노파가 아내 기일 수일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로 지금 임금 18년이니, 그녀가 태어난 숙종 경자년(1720)으로부터 75년이 되었다. … 몽산자는 말한다. 윤희설은 참으로 망령된 것이다. 저 노파의 이른바 ‘선과 악의 응보’는 우리 유가에서도 언급하였으나 명료한 변석은 없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죽어 자손이 없을 경우 그 보답을 베풀 곳이 없어 부득불 내세에서 구하니 그 말이 그럴 듯하다. 그러나 현세의 고통이 전생의 악에 대한 보답이 아님을 알 수 없은즉, 이미 여기 현세에서 보상한 것이니 또 어찌 저 내세에서 구하리오? 안씨의 요절, 원씨의 가난, 등씨의 자식 없음이 수와 부를 누리고 많은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을 저지르는 자에 비해 어떠한가? 즐거움은 선을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보답은 내세에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까닭에 선행 그것이 바로 선보요, 악행 그것이 바로 악보라고 말한다. 그러니 노파와 같은 이는 두터운 보답을 받은 이가 아니겠는가?³⁴⁾

효전은 글의 마지막에서 노파의 생이 마감되었음을 알리며, 그녀의 덕행을 칭송한다. “즐거움은 선을 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보답은 내세에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까닭에 선행 그것이 바로 선보요, 악행

33) 김영진, 앞의 책, 78쪽.

34) 沈魯崇, 『孝田散稿』 7冊, 『朴縕傳』

그것이 바로 악보라고 말한다.”라 하며, 선행자(善行者)는 그 보답을 곧 이 내세에서 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설명한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곧 선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이다. 노파는 여항에서 재세관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숙(賢淑)한 자였으며, 자신이 은택(恩澤)을 입은 효전의 식구들을 위해 그 선의(善意)를 행한 자이다. 특히 아내와 아내 사후의 나에게까지도 신의(信義)를 저버리지 않는 박노파는, 효전으로 하여금 ‘전’(傳)으로 입전시키기에 충분한 자질을 지닌 자이다.

그런데 이 글은 박노파를 기린 글이지만, 작품에서 노파의 실체를 구현하기 위해 아내와의 관계가 상당 부분 할애하여 묘사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아내와 얽힌 일련의 일화들과 아내의 죽음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파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아내에게 더 초점화가 된 듯하다. 효전의 아내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무신년(1788) 여름에 아버지께서 귀양을 가셨다. 어머니께서는 병이 드셨는데 봉양하고 약을 마련할 대책이 막막하였다. 때마침 조운(漕運)하는 철이어서 조운선(漕運船)이 분창(分倉)을 시행하느라 정채(情債)로 올라오는 쌀이 수십 포대였다. 당시 서유린 공이 호조판서를 맡고 있던 터라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쌀을 바로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아내 이씨에게 상의했더니 아내가 “안 됩니다. 쌀 수십 포대로는 몇 개월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젊은 선비가 정승에게 청탁하는 짓과 몇 달치 쌀이 없는 것을 건취보세요. 그 경중과 득실이 어떠한지요?”라고 하였다. 내가 부끄러워 사과하고는 그만두고 말았다. 지금도 무언가 이득을 볼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당시의 일이 먼저 마음에 떠오른다. 아내는 내게 임금을 보필하는 어진 선비이자 힘센 정승과 같은 존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³⁵⁾

35) 沈魯崇, 『孝田散稿』 33冊, 「自著實記」, <藝術>

이 글은 효전이 모친의 약값 마련을 위해 친분을 이용해 쌀을 청탁하고자 했던 일화이다. 재밌는 것은 이 같은 중대한 일을 효전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상의하고자 하였으며 또 그 조언에 감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내는 지금의 어려움을 한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명분을 저버리고 손쉽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라며 일침을 놓는다. 효전에게 있어 아내는 지속적으로 귀감이 되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효전은 아내를 “임금을 보필하는 어진 선비이자 힘센 정승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한다. 효전의 아내 전주이씨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녀는 마음과 행동이 어질고 바른 존재인 듯하다. 아내를 두고 “평소 과묵하여 무능한 듯 보였지만 천성이 지혜롭고 이치에 밝았으며 말도 조리 있게 잘하였으니 왕왕 뛰어난 것을 드러낸다.”고 묘사한다.³⁶⁾ 이씨는 조용한 성품을 지녔지만 사리분별이 뛰어나고 세상의 도리와 이치를 터득한 현묘한 여성이었다. 효전을 보좌하여 바른 길로 이끌고 더불어 남편에 대한 신의를 잊지 않는 존재이다. 효전은 이씨를 두고 “아내로 하여금 하루도 편안하게 해주질 못한 나를 보고도 걱정하는 일이 없었다”³⁷⁾라고 전하는데, 그것은 아내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헤아린 존재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앞의 박노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효전의 묘사에 따르면, 노파의 선행(善行)은 아내와의 만남에서 증폭되었으며, 그러한 선의(善意)는 사회적 위계나 신분 혹은 나이를 넘어선 우도(友道)의 경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노파와 아내는 우도를 실현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자들이다. 그러므로 노파와 아내 사이의 만남에서 실천된 선행은 그 자체로의 선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6) “발끈하며 성질을 부려 절제하지 못하면 대부분 아내가 바로잡아 주었다. 아내는 막상 성질을 부릴 때는 말 한마디 없다가 지나고 나면 마지못해서 하듯 신신당부하며 타일러서 마음으로 느끼도록 하였다. 그러면 나도 받아들여 잘못했다고 인정하였다. 언젠가 아내에게 규방의 뽕뽕한 보좌관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허튼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 沈魯崇, 『孝田散稿』 33冊, 「自著實記」, <性氣>

37) 沈魯崇, 『孝田散稿』 6冊, 「偕隱屏跋」

종합하면 『효전산고』에서 형상화된 여성들은 모두 효전이 부여한 가치를 실현시키고 있는 여성들이다. 기생 계섭, 불교신자 박노과, 아내 전주 이씨가 바로 그들이다. 그녀들은 효전이 지향하고자 했던 우도(友道)를 실천한 여성들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사람됨의 도리를 깨우쳤고 참다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람으로부터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진정한 만남을 기다리며 자신의 진면모를 알아봐주기를 바랐던 것은 효전 바로 자신이었던 것이다. 애석하게도 효전의 참 만남은 아내였으나 그마저도 일찍 잃게 된다. 조선의 유래 없이 아내를 위한 수십 편의 도망문(悼亡文)을 남긴 것도 이 때문이다.

아내는 비록 죽었지만 이것을[죽은 아내를 위해 만든 병풍(屏風)] 마주하고 늘 아내와 대화하면서 생을 마친다면 거의 아내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될 것이요, 이를 보는 자들은 또한 나와 아내가 부부이면서 봉우의 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³⁸⁾(밑줄은 필자)

그럼 잠시 유보했던 ‘어린 소녀의 연정(戀情)’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지난 날 효전이 시폭(詩幅)을 써 준 소녀는, 효전을 찾아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기우를 실현하고자 한 여성이다.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의(眞意)를 믿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행동한 여성이다. 그것이 효전에 대한 염모의 감정일 수도 혹은 시(詩)에 대한 문학적 감화(感化)나 감복(感服)이거나 그것을 넘어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참다운 만남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효전이 자신을 찾아온 소녀를 만나지 않고 돌려보낸 것에 대한 후회는, 어쩌면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 먼저 그 우도의 이치를 깨달은 소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고(回顧)는 아니었을까.

38) 위의 글, 「偕隱屏跋」.

4. 결 론

효전에게 놓인 시대적 상황은 기우(奇遇)를 어렵게 했고, 이는 소외된 문인들의 담론으로 대두되었던 우도(友道)의 개념과 연관된다. 진정한 만남은 임금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했지만 교우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실성을 반영하고 솔직함이 특징인 효전의 문학에서, 정치적 동료나 친구 관계 등에서 각별했던 자의 언급을 찾기 어려운 점은 이를 반증한다. 그 이면에는 효전의 결벽증과 까다로운 성품도 한 몫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의 인생에서 잠시 ‘만났다’ 생각했던 아내와도 일찍 사별하자 그 슬픔을 애도하는 제문을 상당 부분 남긴 것도 이러한 맥락과 연결된다. 효전은 자신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군들을 통해 자신의 불우함과 아쉬움을 이입시키고 그녀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이상향을 드러내기에 이른다. 여기서의 여성은 신분이나 계층에서 소외되었지만 특별한 자질을 가졌으며 묵묵히 자신의 참 만남을 실현해가는 여성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실현코자 했거나, 실현했었던 것은 인간의 유한한 생애로 볼 때, ‘잠시’의 만남에 불과했다.

물론 효전도 우도(友道)를 실현하고자 정치적 입장을 견고히 하고 각종 저서 등을 통해 현실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지만, 결국 그는 등용되지 못했고 주류와 어울리지 못했으며, 교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글쓰기만이 유일한 즐거움이라 일컬었던 그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진의(眞意)에 대한 기록이었을 뿐이다. 효전이 형상화한 여성은 바로 타자화된 여성을 동일시한 자기 자신의 투사영(投射影)인 것이다.

효전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여성형상화 방식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 이 연구는 『효전산고』의 실체를 드러내기에 아직 부족하다. 효전의 작가론이나 작품론 등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겸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나 후속 과제에서 이행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심노승, 『효전산고』 1-13권, 학자원, 2014.

2. 단행본

김영진 역,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11~310쪽.

안대회·김보성 외 역, 『자저실기』, 휴머니스트, 2014, 10~762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DB.

3. 논문

강명관, 「문체와 국가정치」, 『문학과 경계』, 문학과경계사, 2001, 120~142쪽.

강혜선, 「정조의 문체반정과 경화문화」, 『한국실학연구』 23, 한국실학학회, 2012, 89~121쪽.

김영진, 「효전 심노승 산문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11, 민족문화사학회, 1997, 214~240쪽.

김영진, 「유배인 심노승의 孤獨(고독)과 文筆(문필)로써의 消愁(소수) 유배 일기 『南遷日錄(남천일록)』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근역한문학회, 2013, 79~108쪽.

박무영·김성은 외, 「환처 다시 읽기」, 『열상고전연구』 제32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111~141쪽.

박수밀, 「18세기 우도론의 문학·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85~108쪽.

박재경, 「18세기 조선 문단의 명말청초 문학 인지 양상」, 『동방학문학』 54집, 동방한문학회, 2013, 133~168쪽.

안대회, 「조선 후기 소품문 창작과 명칭 소품문」, 『중국문화』 제53집, 중국문화학회, 2007, 186~200쪽.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 변모」, 『한국한문학연구』, 한국

- 한문학회, 2001, 95~121쪽.
- 안대회, 「18,19세기의 음식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 -심노승(沈魯崇)의 『효전산고(孝田散稿)』와 『남천일록(南遷日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9권0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5, 167~192쪽.
- 이경구, 「조선 후기 주변 인식의 변화와 소통의 가능성 - 18세기 연행록과 북학파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3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09, 99~127쪽.
- 정우봉, 「일기문학의 관점에서 본 감담일기의 특징과 의의」, 『韓國漢文學研究』, 한국한문학회, 2010, 417~447쪽.
- 정우봉, 「沈魯崇(심노승)의 『南遷日錄(남천일록)』에 나타난 내면고백과 소통의 글쓰기」, 『韓國漢文學研究』, 한국한문학회, 2013, 261~305쪽.
- 정우봉, 「심노승(沈魯崇)의 자전문학(自傳文學)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과 자아 형상」, 62권0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89~118쪽.

Abstract

The Feature of *Hyojeonsango*
and the Meaning of Method Embodying Women

Han, Sae-Hae

This report has the purpose that looking around the literary feature of hyojeon, the intellect of eighteenth century, and especially considering the statement about a questionnaire woman he embodied with his own intent and purpose.

The first feature of hyojeon, literature is that it takes little easy style, so anybody can read it, rather than old style. And second, his sincerity. he abandoned the traditional literature of chosun concentrating on the moderation, took his own sincere perspective. and third, he described non-central and non-traditional people and facts, especially the life of women chosen for explaining some truth.

The women hyojeon wanted to embody through *Hyojeonsango* is the women that actualized the true contact hyojeon concentrated on. It is deeply related on the unreasonabl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that ignored him. So, he revealed his sincerity with talking about the alienation of women's life. The women positively act for their true contact. But in reality, he never get the true friend, rather miss his wife he temporarily considered the true friend. Hyojeon believed that true writer must write true life of his own. So, hyojeon transmit his own meaning to us with his detail records holding his everything.

Key words : Eighteenth Century, Women, Little Easy Literature, Sincerity, True Mind,
True Contact

■ 본 논문은 2015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